

[결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 있어서 환자 고정용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비만 체격의 환자에 있어서는 복와위 자세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다. 또한 오차의 크기를 인지하고 최초 치료계획시 조사야를 오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18> 방사선사의 정원 선정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 춘해병원 방사선과
박 명 제

부산 시내 대학 부속 병원 4개, 종합병원 14개, 병원 12개, 의원 19개의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322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정원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265명(회수율 82.3%)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곳은 일반 촬영실이 24.5%로 가장 많았고 의료영상장치 대수는 현상기가 81대(17.3%)로 가장 많았으며 촬영실별 1일 환자 수는 일반촬영실이(53.8%) 가장 많았다.
2. 촬영건수를 정할 때 skull series를 1건으로 하는 경우가 49.0%로 나타났고 4건으로 하는 경우도 46.9%로 나타났다.
3. 방사선과 전문의 0.2명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입원환자 24.7명당, 외래 환자 54.0명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다.
4. 의료영상장치 1대당 방사선사 0.7명으로 나타났으며 촬영실별로는 혈관촬영기가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MRI실(1.5명), 다음으로 CT실(1.4명)로 나타났다.
5. 정원제 실시에 관하여 조사 대상자의 86.0%가 찬성하였고 기대되는 효과는 방사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 이다가 57.0%로 가장 높았다.
6. 정원제를 할 경우 병원규모 및 촬영실에 따른 차이를 두어야 한다가 64.9%, 81.1%로 가장 많았고 촬영실의 정원제는 일반촬영실이 대학병원(55.6%), 종합병원(58.8%) 다같이 2명 근무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CT실은 대학병원(42.3%), 종합병원(60.0%) 다같이 3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정원제를 할 경우 기준은 의료영상장치 대수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117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촬영건수(30.6%)로 나타났으며 의료영상장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대당 방사선사 1명으로 하기를 원하고(53.8%) 촬영건수로는 20건 이하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33.3%)로 나타났다.